

해마다 5000여명 배출되는

재미교포 2세 석·박사 활용하라

인류 역사상 100만이 넘는 인구가 고국을 떠나, 3만 리나 떨어진 멀고 먼 남의 땅 구석구석까지 파고들어 '작은 왕국'을 세우고 살아가는 예는 일찍이 없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역사를 만든 사람들이 있다. 이 역사는 197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출 한국(Exodus Korea라고 필자가 칭함)' 사건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들 한국인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그 수가 2배로 불어나, 현재 각 분야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다.

'한강의 기적'을 일군 한국은 세계 여러 나라의 관심 속에 G7으로 진입하기 위해 매년 숨가쁘게 전진하고 있다. 지난 25년 간의 놀라운 성장 속도를 고려하면 G7의 고지가 바로 코앞에 와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이러한 기적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 정부가 '과학 입국'을 목표로 과학과 산업 정책을 병행한 결과이다. 또한 선진국, 특히 미국에서 교육받은 많은 과학자들이 대거 귀국하여 산업기반의 조성과 연구개발에 커다란 공헌을 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2002년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에는 16만 명의 연구원과 6만여 명의 기능직 연구보조원이 6400여 개의 대학과 4200여 개의 국공립연구소 및 사립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으며, 정부출연 연구비와 기업의 연구투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많은 연구비를 제대로 사용하여 값진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연구원들의 자질 향상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단지 노벨상을 '생산'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으로는 연구의 효율성이 향상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연구원의 기초교육을 담당하는 대학마저 이공계 교육을 소홀히 하고 있는 형편이다. 생산공업의 장기적인 위축과 불황이 교육계에서의 이공계 기피 현상으로 연결되었고, 이런 현상은 장학금 지원으로도 해결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건을 가지고 연구개발이라는 전면

전을 치를 수는 없다. 작년보다 금년의 연구 결과가 더 좋다 할지라도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한국보다 몇 배나 빠른 속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적당한 입법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상의 기반이 조성된다는 가정 아래, 현재 미국을 비롯한 다른 선진국에 살고 있는 한인 2세 과학자들을 적극 유치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미 몇몇 기업들이 실천에 옮기고 있으나, 인력 수입 외에 이를 위한 기초작업에는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명문대 졸업한 한인 영재들 한국에 대한 관심 낮아

한국 정부는 앞으로 손대지 않은 '노다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계 교민을 150~200만 명으로 짐작할 때 20~24세의 인구는 8.42%이며, 매년 2만 5000~3만 3000명(1.68%)의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할 나이에 도달한다고 추정된다. 이들 중 80% 정도가 대학을 졸업한다고 가정하면 매년 2만~2만 6000명의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졸업생의 25%가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매년 5000명~6500명의 석·박사 및 전문직 요원이 배출되는 셈이다. 특히 이들 대부분이 미국의 명문 대학을 졸업한 영재들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이들 우수한 인재들 중 극히 일부가 한국으로 오고 있긴 하지만, 고국에 대한 한인 2세들의 관심은 매우 낮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은 한국에서 살 생각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짐작할 수 있듯이 좋은 직장에서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 인재일수록 이런 현상이 심하므로, 결국 미국에 살면서 한국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는 더욱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들이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가 창립되고 30여 년이 지난 지금, 1만여 명의 석·박사급 고급인력이 전 미주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최근 이 협회는 한국 과학의 새로운 장을 열 재미한인 2세의 영입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의지와 함께 적극적인 투자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클. 서문원 |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교 교수

한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적고 더욱이 한국의 직장에서 일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말과 글을 제대로 모르고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식 역시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인 2세의 한국어 교육과 문화, 역사 교육을 위해 한국 정부가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직·간접으로 여러 사업을 추진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시행한 사업이었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목표중심, 결과중심으로 벌인 수익사업은 아니었다. 때문에 소극적인 교민지원 사업에 그쳤을 뿐, 적극적인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인 영재 유치의 지름길은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미국의 한인 2세가 주축이 되어 한국을 G7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이를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1980년 재미한인학교협의회 창립에 뜻을 모으고 1981년 창립총회 이후 회장으로, 이사장으로 또는 교사로 일해 오면서 아픔과 기쁨을 함께 맛보았다. 한국학이나 교육학에 전문 지식이 없는 한 과학자로서 이 일에 심혈을 기울인 이유는, 이 영특한 한인 2세들이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재미한인학교협의회는 지난 21년 동안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여 미국 전역에 있는 1800여 개의 한국학교 및 한글학교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민들이 주도한 자원봉사 사업이지, 한국 정부가 교육부를 통해 전달한 적은 액수의 지원금에 의존한 사업은 아니다. 한국 정부는 매년 미국내 여러 대학의 한국학과를 상대로 수백만 달러씩 지원해 주었으나, 막상 한인 2세의 한국교육에는 한번도 대규모 투자를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석·박사 출신의 교포 과학자들이 매년 100명

이상 귀국하리라는 한국 정부의 예상은 전혀 근거 없는 희망사항에 불과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지금 미국에서는 5000~6000명의 한인 2세 석·박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1975년에 이민간 교포들의 자녀가 지금 25세를 넘어가고 있다. 한인 3세의 행방을 예측하는 것은 아직 이르지만, 지금부터가 한국이 한인 2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시간이 갈수록 한인 2세의 수는 줄어들 것이고, 곧 3,4세의 시대가 다가올 것이다. 이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과 기여도는 2세에 비해 줄어들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한국 정부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노다지'를 캐는 방법은 간단하다. 첫째는 제도적이고 적극적인 문호개방이고, 둘째는 한인 2, 3세를 대상으로 한 교육투자, 즉 그들에게 한국의 말과 글, 역사와 문화를 적극적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매년 몇백 명씩 단기간 한국을 방문하도록 하는 홍보단계에서 그치지 말고,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시스템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나 교민청 수준의 자원사업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정부의 모든 부처가 총동원되어 장기적인 투자와 함께 지속적인 사업으로 바뀌어 갈 때, 한국은 그 노력에 대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이고 또한 G7으로의 행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다.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가 창립되고 30여 년이 지난 지금, 1만여 명의 석·박사급 고급인력이 전 미주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최근 이 협회는 한국 과학의 새로운 장을 열 재미한인 2세의 영입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노다지'를 캐려는 한국 정부의 의지와 함께 적극적인 투자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